

11학년생, 입시준비 더 미루면 후회한다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19학년에 재학 중인 자세를 둔 부모라면 이제 불과 5개월 정도 남겨 놓은 조기전형 고입과 그 이후 두 달 뒤의 정시전형 성적으로 합격여부 여하가 지니게 될 것이다. 매년 점점 작아지는 입시인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일 박같은 시간이 흐름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아쉽지 않아야 할 선전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여름방학 인턴십 자리 등 미리미리 접촉
추천서 써줄 교사도 지금부터 알아봐야

■아무리 바빠도 계획을 세워라

11학년 학생들은 지금 5월이 되면서 AP시험과 IB시험, SAT I & II시험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얼마 뒤에는 학기말 시험도 차려야 한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기말시험을 AP 시험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학생들 가운데 책지 않은 수가 지
금은 학교 일이 너무 바쁘니 기말시험
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 계획
을 세우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요즘처럼 자잘한 입시경쟁에서 승리하
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학
생들은 2학기 시작과 함께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과외활동들을 정해 놓기
부터 한다. 여름 들린 한탄식 값은 것은
여러 톤을 애통하고, 손님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 이런 점을 꼭 기억하자

대학은 각 자원자들을 포괄적으로 살핀다. 이유는 서로 다른 개성이 합쳐진 대학이란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자신과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렵게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만 쉽지 않다. 단지 최선은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잊지 마라.

▶여름밤의 물결은 열차의

미국의 교육은 여름방학이 유난히 길다. 각 학년마다 3개월식의 여름방학이 있고 4년을 모두 합하면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된다. 그래서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는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에 가을에 만난 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거의 A를 받았고, SAT도 1490점, ACT 점수는 2.280점으로 우수했다. 또 각종 학력증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비리그에 입학하지 못했다.

이 학생의 기록을 살펴보니 고교생활 여름방학 동안 내세를 위한 것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자녀의 성향과 재능,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 접근과 관련 있는 실용적이며

아카데미인 병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인턴십, 봉사활동 등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특히 12학년은 올라가기 전의 여름방학은 11학년 과정에 포함된 대학 입학 요소에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에 맞도록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한다.

▶테스트 준비는 완벽한가

대입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SAT 혹은 ACT시험이다.

물론 대학 입사에서 SAT나 GRE가 단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평가요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명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수한 실력의 학생들인 경우 합격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SAT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름방학동안 다시 한 번 공부해서 도전해야 한다.

많은 대학들이 SAT I과 II의 점수를 요구하는 만큼 입학 이후 시험 일련과 자녀의 준비상태를 파악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응시할 시험 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 '100일 작전' '8주 도전' 등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최소 3과목 이상이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SATI는 언어적으로 700점 이상을 AP 성적은 세 과목 이상을 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명문대 도전에 유리하다. 또 유학생활 경우 보통 점수가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명문 대학에 지원할 때 경쟁력이 생긴다. 또한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추천서 준비

추천서는 가능하면 11학년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급종 학생들 자신이 추천서를 써줄 선생님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추천서는 지니가 성적이 상위 그룹에 속한 과목을 담당하는 친한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대학에서 가능하면 영어 또는 역사 선생님 중 한 명,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선생님도 추천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도록 한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루는 곧 시가될 지면서 작심 준비를 위해 11학년 학생들은 지금까지 여문생각 계획 등 인사문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 제니 킵 존스 홉킨스 입학사정관

“여름방학 때 에세이 초안 만들어야
12학년 되면 학교수업에 매진 가능”

▶카운슬러와의 관계
학교 카운슬러는 입시정보의 보고이며
면서 추천서 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해
대학에 보내주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나눠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은 고교 카운슬러를 통해 학생
들의 학업태도, 고교활동, 성격 등을 파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생 수가 많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카운슬러들은 물리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상담해 줄 수 없다. 만약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전문 컨설턴트를 찾는 방법이 있다.

▶칼리지 투어
가능한 한 칼리지 투어도 자금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
학에 대한 통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
대학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
기 때문에 투자 플랜을 짜서 내일 있
게 다녔던 것이다.

캠퍼스 방문은 자원할 대학 선생, 원서 작성, 매개에 준비 등에 큰 도움이 될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재학생 및 교수도 만나보고 수업 참여 및 인터뷰도 하도록 한다. 또 여러 가지 대학의 자료를 얻기든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방문 후에는 반드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도록 한다. 캠퍼스 방문은 여름방학 끝 무렵까지 마쳐야 좋다.

(출처: 대학 입학)



Integral과 함께

세무보고, 회계조사, 경영분석, 지적재산권 상담, 특허 존속확보, 그리고 많은 다른 가치와 혜택을 얻으십시오.

- (1) 회계 및 Office Setup
- (2) Individual / Business Tax Planning
- (3) IRS Audit Representation
- (4) Accounting / Bookkeeping Solution: 500-2 years
- (5) College Planning Solution (RPSA, CSS Profile)

Simon S. Lee, CPA (213) 365-0110

- 3440 Wilshire Blvd. #520, LA, CA 90010
- (626) 664-0018 (626) 862-3596 Fax (213) 365-0117
- 780 Rosemead #201 Irvine, CA 92620 (949) 701-6654

www.integralcpa.com integralcpa.com



**TAX
TUTOR**